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은혜교회 성경공부  
설교 : 김성한 목사님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 † content †

0. 헌법 서론
1. 성경
2. 하나님과 삼위일체
3. 하나님과 영원한 작정
4. 창조
5. 섭리
6. 인간의 타락, 범죄, 형벌
7.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8. 중보자 그리스도
9. 인간의 자유 의지
10. 효과적인 부르심
11. 칭의
12. 양자됨
13. 성화
14. 구원에 이르는 믿음
15. 생명에 이르는 회개

# 제 0장 교회 헌법 서론

## 니케아 신조 from 동방교회

우리는 저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입니다.

그는 피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다.  
그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 이시며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보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매장되여 다  
3일 만에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된다.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 부터 나오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위한 한 번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믿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325년 전체 교회 회의를 니케아에서 소집하였다.  
5교구에서 318명의 감독이 참석하여, 당시 쟁점이었던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지었다.

## 천주교와 비교

### 천주교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부분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여기서도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고개를 깊이 숙인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저승에 가시어],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두 개가 추가 되었다.

### 천주교의 림보 사상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구약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림보에 가서서 모두를 데리고 천국에 가셨다. 엘리야의 경우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림보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의 말도 림보를 부정할 수 있다.

림보 : 경계

### 성인의 통공

사람들이 지은 죄와 선행을 비교하여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는데 필요한 만큼 빼고도 남은 선이 있는 경우 그 자를 성인이라 하고, 그자가 남긴 선은 교회에 남기고 가는데 그것을 성인의 통공이라 한다.

### 연옥 교리

죄가 선보다 더 많은 경우 연옥에 가서 죄를 씻은 뒤 천국에 간다. 지옥과 같지만, 지옥은 영원히 있는 것에 비해 연옥은 기한이 있다. 천주교 측은 “[마카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드린다.”라며 이를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마카비는 과거 성서가 아닌 것을 천주교 측에서 교리를 맞추기 위해 집어 넣은 것이며 [레위기]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는 드리지 않는다.

현재 교회의 사도신경에는 초대교회에 없던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종교 개혁 때, 천주교의 사도신경 뒷부분의 저승에 갔다는 내용은 빼고, 성인의 통공을 성도의 교제로 바꾼 부분이다. 그 부분은 제대로 고친 것이다.



# 제 1장 성경

1. 1) 자연계에서 오는 지식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보여 주는 바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대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인류는 도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데 충족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그의 교회에 자기 자신과 그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그 계시된 진리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심이 또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2) 성경의 필요성은 그 진리를 보다 잘 보존시키며, 전파케 하며 더 확실하게 세워서 진리 반대 운동을 막아 교회에 구원의 위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진리 반대 운동”이라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육체의 부패성과 진리를 항거하는 사단과 세상의 악한 공작 등이다.) 3) 이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예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그 방법을 이제(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정지하셨기 때문이다.

- 1)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도피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 2) 법이라는 것은 한번 정의되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를 정지하셨다는 사실을 겉고넘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 마지막에 “여기에 일확이라도 덧붙이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 3) 성경은 66권으로 완성하셨다.

2.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신, 구약의 모든 서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성경의 각 장 이름으로 생략)

>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주신 것이니,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천주교의 외경은 천주교의 연옥설, 천사송배사상등 비성경적 교리를 넣기 위해 성경이 아닌 책을 집어넣는데, 그것들은 성경이라 보기 힘들다. (토비트는 역사가 아니라 소설이다.) 그 당시에는 성경과 비슷하나 성경이 아닌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천주교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맞는 책을 성경에 추가하여 집어넣었다.

(e.g) 유다복음서, 도마복음서

> 또한 천주교는 루터가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는 것이 낫지 않나 라고 적은 것을 꼬투리 잡으며 성경을 인간이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야고보서’를 이해 못하였기 때문에 번역하며 (이해 못하겠다고 차라리 뺏으면 좋겠다) 라고 주석을 달았지만 번역한 성경에서 빠지는 않았다.

## 성경 리스트가 만들어진 배경

천주교에서는 진짜 복음서를 이레니우스가 교권 장악을 위해 뺐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 정할 때 수많은 교부에서 성경이라 여겨지는 리스트를 받아 만들어 졌으며, 과거 많은 교부들이 가진 리스트 내에서 모든 교부들이 그런 것들은 (유다복음서, 도마복음서, 토비트 등) 성경이 아니라 하였다. 초대 교회의 리스트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라 구별한 것이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이고 아니고를 판단할 수 없다.

## 유대인들의 성경과 비교

엄밀히 보면 구약성경에 대한 권위는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이 유대인의 성경에 있는 대로이다.

## 사해사본(고대 성경본)

사해사본이 발견된 고대 도서관에서 책이 200여종이 나왔다. 성경은 양피지에 썼고, 외경은 파피루스에 써져 있었다. 게다가 외경이 다 나온 것도 아니었다. (마카베오)

## 천주교의 원리

천주교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교황의 말씀, 성서, 성전이 있으며, 성서는 성경, 성전은 지금까지 교황청에서 만든 규례들이다. 천주교에서는 성서와 성전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 하지만 천주교에서

3. 일반적으로 가경이라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속하지 못하며, 따라서 교회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의 작품일 뿐 그 이상 달리 인정받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4. 우리가 성경을 믿어 복종함이 당연한 것은 성경의 권위 때문이다. 그 권위의 성립은 어떠한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런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우리는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성경이 성경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 교황등이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다.

5. 우리는 교회의 논증에 의하여 성경을 고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게도 된다. 그 논증들은, 곧 성경에 있는 진리의 천적인 성격, 교회의 능력성, 무체의 장엄성,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 기타 많은 진리의 탁월성과 그 전체적 완전성이다. 성경의 이런 속성들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무오성과 그 신적 권위를 확신케 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는다. 성령의 내적 증거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역사를 말한다.

> 이스라엘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의 고백에 의해 분별되어 왔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의해 분별되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또 하나의 계시는 '보존'이다. (현재 성경으로 전해지는 장들은 전부 온전히 보존되며 전해져 왔고 성경이 아니라 정해진 책들은 전부 없어지거나 사라져 버렸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어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 (같은 바울의 편지더라도, 어떤 것은 성경으로 받고 다른 것은 받지 않았다.) 성경의 형성 과정이 엄청난 기적인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위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을 가감 없이 전하고 읽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성령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사악한 것이다.

6.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진리)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아니며 필연적이고 종은 추론에 의하여 그것을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성령의 새 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언제든지 더하지 못한다. 성경에는 성령의 새 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언제든지 더하지 못한다. 우리가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받는 데 효과 이도록 깨달으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만 한다. 다만 교회의 예배나 행정과 같은 일에 관하여 인류의 일반 행사나 집회와 마찬가지로 지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이성의 정당한 지식과 기독교 신자의 양식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일반적 원칙들을 살피서 지켜야 한다.

>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알면 나머지 것은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성경에 유전이라는 것을 두어 성경이 만든 것을 뒤집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천주교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성경으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 없이는 안 된다. 신앙적 양심과 인간의 기본적 이성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모든 것이 계시가 되어선 안된다.

7. 성경에 포함된 모든 진리가 그 명백성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 명백히 해석되어 있고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유식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평범한 지각을 적절히 사용해도 그 진리들을 만족히 알 만하다.

> 성경에 난해한 구절도 존재하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구원받는데에 충분한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성경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게,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모르게 주셨다. 성경은 영혼의 눈이 깨인 자는 아무리 멍청해도 깨닫고, 영혼의 눈이 닫힌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깨닫지 못한다.  
( 천주교는 성경에 대한 보관과 해석의 전권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며 교황이 성경의 해석을 독점하고 있다. )

8.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책들은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그 최후적 결론을 내린다.  
성경을 읽을 권리와 관심을 가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읽어를 알지는 못하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경의하는 심리로 성경을 읽으며 상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되어 그들이 합당하게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

> 이슬람의 코란은 번역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암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불교는 인도 말로 경을 외운다. 천주교는 과거 라틴 성경을 번역을 안 하였지만, 종교 개혁 후 루터가 번역하자 마지못해 번역하였다. 이 당시 번역을 한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었다.

9. 성경 해석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뜻(어려이 아니고 하나뿐이)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뜻을 더 명백히 나타내는 다른 성경구역을 밝혀야 한다.

> 오직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과 엉터리 해석이 난무하여야 한다.)

## 교리와 성경해석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교리를 모르면 성경에서 해석이 안 된다.

10.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의 결론이나 예나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교훈이나 영들을 검토하여 시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그의 판결에는 누구든지 순종해야 한다.

> 성경이 모든 최종 판단의 근원이다.  
( 천주교의 최종 권위는 교황의 선포에 결정된다. (e.g) 성모 몽소승천 설 )